

설교 말씀 전 기도

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.

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당에 조용한 가운데 앉아서 인생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 것 감사 드립니다. 세상 여러 가지 풍조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고 특히 예수님을 믿는 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조차도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. 특별히 이번 주에는 평화의 사자라고 알려진 로마의 교황이 이 나라에 이제 방문하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폭풍 같은 그런 일이 이 나라에 닥칠 것을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상도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우리 사랑 침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계에 있는 목사들과 그 다음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과 진리를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과 마귀의 일을 구분할 줄 알며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을 구분해 낼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. 이 땅을 돌아 다니면서 한 번도 예수님의 단번 속죄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8월 15일 마리아 승천했다고 하는 날에 대 미사를 집전하고, 교계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의 꿈무늬를 이제 줄줄 쫓아 다니며 한자리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이전 주에 또 다음주에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,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그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

아버지 하나님 아래 층에 누워 계신 우리 피어스 형제님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이 땅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을 그와 같은 날을 기다리고 있어 온데, 아버지 하나님 평강에 평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기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. 여기 땅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

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!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 그와 같은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

“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.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어라.”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강해하게 될 때,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말씀만 전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